

# 흔들린 광주 가전, ‘OEM 탈피’로 활로 찾는다

〈위탁 생산〉

광주 가전기업 10곳 중 7곳 “ODM·OBM 전환 의지”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고부가 구조 전환 필요성 커져

개별 기업 역량 한계…판로·자금·기술 인력 지원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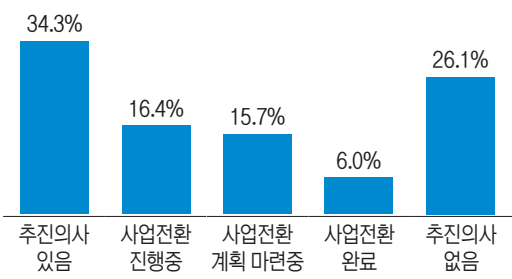
광주지역 주력 산업인 가전산업이 기존 OEM(위탁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ODM(제조 중심 기업)이 제품 설계·개발까지 확대하는 생산 방식)·OBM(자체 브랜드 기반 제품 기획·유통을 수행하는 사업 모델) 전환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생산과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면서 지역 가전기업 다수가 고부가가치 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7일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광주인자위)가 광주 지역 가전기업 13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광주지역 가전산업 ODM·OBM 전환 여건 및 정책 연계 방안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72.4%가 사업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계획은 없으나 추진 의사는 있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고, ‘사업 전환 진행 중’(16.4%), ‘계획 마련 중’(15.7%), ‘사업 전환 완료’(6.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OEM 중심의 생산 구조와 특정 대기업

■ 가전기업 사업전환 추진단계 현황



의존도가 높은 광주 가전산업이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3년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생산 물량 조정과 고용 불안이 이어진 데다 관세 부담 등 대내외 위협이 겹치며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사업 전환 방식으로서는 기존 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관련 분야를 확장하는 ‘단계적 전환’이 주를 이뤘다. ‘기존 비중 유지 및 관련된 새로운 분야 추가’(9.7%), ‘기존 비중 축소 및 관련 분야 추가’(9.0%)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사업 전환 의지는 뚜렷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현실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신규 판로 개척의 어려움’(33.6%)이었으며 ‘자금 조달 곤란’(28.4%), ‘신규 업종에 대한 전문기술 및 정보 부족’(18.7%), ‘인력 확보 곤란’(6.7%) 등이 뒤따랐다.

광주인자위는 이같은 결과를 지역 가전산업 기업들이 ODM·OBM 전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시장과 자금, 기술 인력이라는

벽을 넘기에 한계가 있다고 풀이했다.

광주인자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ODM·OBM 전환 중심 기업 지원과 고용 지원, 고용환경 개선을 연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OEM 구조에 머무를 경우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광주 가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후형 광주인자위 사무처장은 “ODM·OBM 전환에 대한 수요가 나타난 것은 지역 가전산업이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 기업 지원과 장려금, 고용환경 개선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들의 사업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판로 개척과 홍보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코스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000 돌파…코스닥도 ‘천스닥’

코스닥, 2004년 이후 최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협상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도 코스피가 27일 3% 가까이 급등하며 ‘오천피’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고가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와 전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기록(5023.76)을 동시에 갈아치

웠다. 지수는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로 개장한 이후 한때 4890.72까지 밀렸으나,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 뒤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5.6원 오른 1446.2원을 나타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6일 4년여만에 처음으로 1000선을 넘은

코스닥 지수는 이날 10.22포인트(0.96%) 내린 1054.19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했고, 결국 전일 세운 2004년 코스닥 지수 개편 이후 최고치(1064.44)를 경신했다.

이날 장 마감 기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은 593조123억원으로 역시 전일의 사상 최고 기록(582조8780억원)을 갈아치웠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1조6516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1조4595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고, 외국인도 1109억원을 순매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그린알로에 ‘베라골드 400’ 리뉴얼 출시

현대인 무너진 면역력 증진 도움

친환경 건강기능식품을 선도하는 그린알로에는 “알로에베라겔 추출액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을 재단장에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은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부 건강, 장 건강의 기능성을 인증 받아 소비자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그린알로에 상품이다.

제품은 알로에의 본고장인 미국 농무부가 인증한 유기농 알로에를 유효성분 파괴를 최소화한 급속 동결 건조 공법으로 담았다. 해당 제품을 1일 150ml 섭취 시 알로에의 고유 기능 성분인 면역다당체 300mg을 얻을 수 있어 현대인의 무너진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은 개당 1000ml이며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신제품으로 탈바꿈하면서 열처리한 유산균 사균체를 함유해 안전하게 장까지 도달해 소화·흡수·배변 기능을 돕는 정장작용과 함께 면역활성화의 효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마시는 액체인 액상 제품 특성상 개봉 후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식물 유래 보존료를 함유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

그린알로에는 당 섭취에 민감한 소비자를 고려한 ‘그린 프리미엄 순베라골드 400’도 함께 출시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이 제품은 바쁜 일상으로 기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업무 과중, 불규칙한 식생활로 장 기능이 약해진 이들, 스트레스 등으로 피부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추천한다고 그린알로에는 전했다.

정광숙 그린알로에 회장은 “현대인 건강의 첫 걸음은 면역력”이라며 “환경 오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은행 보이스피싱 55억 차단…광주경찰청 우수 금융기관 선정

문화동지점 우수 영업점 현판 수여

광주은행은 27일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빛고를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영업점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2025년 연말 기준 55억원 규모의 고객 금융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연도별 보이스피싱 예방 실적도 2023년 28억원, 2024년 39억원, 2025년 5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우수 금융기관 선정으로 광주은행 문화동지점은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영업점으로 지정돼 현판 수여식도 진행됐다. 문화동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3건, 1억 2700만원 상당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성민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은 “FDS 기반의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영업점 현장의 세밀한 상담 역량을 동원해 고객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



광주경찰청이 ‘빛고를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영업점’으로 선정된 광주은행 문화동 지점에서 현판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역사회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올해 미국 1회 금리 인하 전망

한국은 주택 가격 상승 우려 동결”

자본원 자본시장 전망 세미나

올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우려가 지속되면서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횡수는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 우려 속 연내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27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올해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올해 미국 경제는 AI(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세계 헤택 확대가 성장세를 지지하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이라며 “다만 관세 등 무역정책 영향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AI 버블 경계감 등 하방 리스크가 병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고용 리스크가 병존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신중한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 미국 기준금리는 한 차례, 25bp(1bp=0.01%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IT 및 조선 부문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한편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개선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2% 수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예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신학기 맞아 책가방 10% 할인 프로모션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6층 ‘태미힐피거 키즈’ 매장에서 다양한 책가방과 보조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태미힐피거 키즈는 신학기기를 맞아 오는 2월 18일까지 가방 구매 시 10% 할인혜택과 필통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외에 ‘아이스비스킷’과 ‘물로’ 매장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신학기 책가방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3주간 24시간 수출입 통관 체계

광주본부세관은 “설 연휴 동안 수출입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농수축산물 등 설 상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수출입 통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별 지원 기간 업무 시간 외에도 임시 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상품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 기업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수출 업체의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수출 기업이 환급 신청 시 평균 2일 내외가 소요됐던 환급금 지급을 당일 지급으로 하고 환급 업무 처리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 운영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중소 수출 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다음달 9일부터 신청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신청을 다음 달 9일부터 받아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해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총지원 규모는 5790억원이다.

바우처의 사용처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롭게 추가됐다. 단 기준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접수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운영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제청과세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084.85 (+135.26)
↑ 코스닥	1082.59 (+18.18)
↓ 금리 (국고채 3년)	3.094 (-0.002)
↑ 환율 (US D) 〈오후 5시 10분 기준〉	1445.25 (+4.65)